

무등야구장 천연잔디로 교체

강운태 시장, 선동열 KIA 감독과의 만남서 약속

14억 들여 공사... 내년 시즌 부상위험 줄어든 듯

KIA 타이거즈가 천연잔디구장에서 V11에 도전한다. 선동열 KIA 신임 감독이 지난 31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 시장은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팀에 돌아온 선동열 감독을 환영하

다"며 KIA 신임 감독을 맞은 강운태 시장은 "개방형 명품구장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생동감 있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리에서 타석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예정이고, 15도의 완만한 경사의 접시형 경기장을 지을 계획이다. 건립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선 감독이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선동열 KIA 감독(왼쪽)이 강운태 광주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선동열 감독은 "선수단이 새 구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타이거즈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간이 나시면 시장님도 경기장에 많이 찾아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이어 "천연잔디로 바뀐다"라는 말로 선 감독에게 '천연잔디'이라는 선물도 안겨줬다.

강 시장은 "천연잔디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현재 야구장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사용해야 하는 만큼 내년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투수로서 V7의 현장에 있었던 만큼 감독으로서도 그만큼 승리를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천연잔디(한국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했던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내년 시즌 천연잔디 구장으로 재탄생한다.

잔디교체 작업에는 12~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KIA가 잔디 관리를 담당하는 형태 등으로 교체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KIA 기획 TF팀장은 "국내 천연구장에서 사용되는 블루글래스로 공사가 이뤄지게 된다"며 "흙에서 자라는 한국잔디와 다르게 모래에서 크는 잔디로 배수성이 좋고 또 뿌리가 아래로 뻗는 특성이 있어 부상위험이 적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구도시 광주를 대표할 새로운 야구장은 오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들어간다.

새 야구장은 무등경기장 축구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립되며 현대 건설컨소시엄이 설계 및 시공을 맡아 2013년 말까지 우선 2만2102석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경기는 2014시즌부터 치러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홀런이야" 지난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1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SK와의 경기에서 삼성 강봉규가 0-0으로 맞선 4회 말 1사에서 고든을 상대로 솔로포를 때린 뒤 베이스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대·정재성 역전 우승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중국 2-1로 꺾어

한국 셔틀콕 남자 복식의 간판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이 짜릿한 역전승으로 또 한 번 반리장성을 보였다.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정재성은 지난 31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2011 프랑스오픈 슈퍼시리즈 남자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차이윈-푸하이펑을 2-1(14-21 21-15 21-11)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이용대-정재성은 지난날 2011 중국마스터즈 슈퍼시리즈를 시작으로 지난 24일 덴마크 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세 차례 연속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차이윈-푸하이펑을 꺾는 패거리를 달성했다. 이용대-정재성은 1세트 11-11 동점에서 5연속 실점하며 분위기가 꺾였고, 결국 14-19에서 내리 2실점해 패했다. 2세트 초반부터 접전을 펼친 이용대-정재성은 내리 2점을 따내 승기를 잡은 뒤 17-13으로 점수를 벌리면서 21-15로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이용대-정재성은 마지막 3세트 초반부터 공세를 펼쳐 16-6까지 점수를 벌리면서 차이윈-푸하이펑을 압도, 21-11로 역전승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한국남자골프 '스타'가 없다

2011 시즌 다관왕 배출 못해... 상금왕 김경태·올해의 선수 홍순상

한국남자프로골프가 지난 30일 NH농협 오픈을 끝으로 7개월 동안 이어온 2011시즌을 마무리했다. 개막전인 티웨이항공오픈을 포함해 총 18개 대회가 치러진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는 2005년 이후 6년 만에 주요 4개 타이틀 부문의 수상자가 모두 다른 얼굴일 정도의 접전이 펼쳐졌다. 일본과 미국 대회를 함께 뛰느라 이번 시즌 KGT 5개 대회에만 출전했던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4억5100만원의 상금을 벌며 2007년 이후 4년 만에 상금왕에 올랐다. 시즌 마지막 대회인 농협 오픈에서 컷 탈락해 상금왕을 차지할 기회를 날려버린 홍순상(30·SK텔레콤)은 발렌타인 대

상(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상금왕인 김대현(23·하이트)은 올해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했지만 평균타수 상(71.389타)을 챙기는 것으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신인상은 재미교포 존 허(21·한국인삼공사)에게 돌아갔다. 4개 주요 타이틀 부문에서 각기 다른 수상자가 나온 것은 2005년 상금왕에 최광수, 대상에 허석호, 평균타수 상에 김대섭, 신인왕에 강경남이 선정된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이처럼 주요 타이틀 독식 현상이 사라진 것은 한국 남자프로골프 무대에서 압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2009년에는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

이 상금왕, 평균타수 상, 대상 등 3개 부문 상을 휩쓸어 시즌 최고의 스타플레이어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김대현이 장타력을 앞세워 상금왕을 차지한 가운데 김비오(21·넥슨)가 평균타수 상과 대상, 신인상을 거머쥐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스타 플레이어의 부재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실제로 10개 이상의 대회를 소화한 국내 투어 선수들은 상금 랭킹에서 국내 대회에서 5차례만 뛰고도 상금왕에 오른 김경태를 따라잡지 못했다. 특히 홍순상은 올해 2승을 거두고도 마지막 대회에서 컷 통과에 실패하는 바람에 상금왕이 될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연합뉴스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네비 매립 전자총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용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아이나비 클리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사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터버튼

참고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음
*차량용 고급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Z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770B 40만원
- ▶ E7 37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Z620 10~14만원
- ▶ ET 17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퀀팅, 3M코팅, 모비스퀀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액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길)
 임동사거리 | 일신병력 | 허남
 임동오거리 | 한국카렌드 | 신안사거리